

미-러 안보갈등 '신냉전' 치달나

러시아 "美 MD 무력화" 새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동유럽 MD 구축 싸고 동·서 관계 20년만에 최악

러시아는 29일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걸리지 않도록 고안된 신형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으며 전술 순항(크루즈) 미사일 발사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제1부총리는 "러시아는 오늘부터 기존의 또는 미래의 어떤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극복 가능한 신형 미사일(RS-24)들을 갖추게 됐다"고 호언, "어떤 미사일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해 온 부시 행정부와 '참과 방패(矛盾)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날 "동유럽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은 유럽을 '화약통'으로 만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 또 유럽관계의 총체적 시스템에 불필요한 새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28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약(CFE) 가입국들에 6월중 특별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러시아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에 MD체제를 구축하는 미국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며 MD 도입 강행시 CFE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푸틴 대통령과 호전적인 이바노프 부총리, 외무부의 줄이은 경고 발언은 미국이 러시아의 반대에 불구, 동유럽 MD 구축을 강행할 방침을 천명한 뒤 계속돼 왔으며 ICB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지 인터넷판은 30일 러시아가 미 MD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ICBM과 순항미사

일 시험발사 사실을 발표, 미국과 '신냉전 양상의 군비경쟁'을 벌일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동유럽 MD 문제로 러시아와 서방세계가 엇소련 붕괴 후 20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CFE 문제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중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조약 비준 때까지 러시아는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폭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29일 러시아가 CFE특별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1990년 체결돼 1999년 개정된 이 조약의 이행에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바노프 부총리가 ICBM에 대해 "어떤 미사일 방어망도 관통할 수 있다"고 호언한 것은 미국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MD 구축을 위해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득해왔다는 점에서 '한비자'에 나오는 '참과 방패(矛盾) 고사'를 연상시켜준다. /연합뉴스

"BDA 해결 위해 돈 세탁 제재 중지 가능"

美, BDA 경영진 교체 전제... 中 역할 관건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0일 베이징에서 중국관리들과 회담하기 위해 호텔을 떠나기 앞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자국 재무부가 발표한 BDA에 대한 '돈세탁 금융기관' 지정 철회도 가능한 여러 방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신 북한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BDA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며 BDA 경영진 교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 중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중국측 당국자들간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협력할 경우 BDA 문제 해결방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6자회담 프로세스가 조만간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국은 BDA 문제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가는

한 해결방안을 거의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면서 "이 방안에는 지난 3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BDA에 대한 돈세탁 금융기관 최종지정을 철회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재무부가 제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BDA 경영진 교체는 물론 적극적인 돈세탁 방지 노력 등 금융거래 투명화를 위한 노력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29일 인도네시아에서 BDA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고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핵 시설 폐쇄를 위한 가철단 방안을 먼저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소식통은 "힐 차관보의 입장은 BDA 해결 약속과 핵시설 폐쇄 협의의 '말 대 말' 원칙으로 하고 이후 실제 BDA 송금해결과 핵시설 폐쇄 조치를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의 지붕 위를 달리는 사나이 지난 1953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8,848m)에 오른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와 에드먼드 힐러리의 등정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텐징·힐러리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가 29일 네팔 솔루컴부 해발 4,500m의 고지를 달리고 있다. /신화AP=연합뉴스

"새 온실가스 규제안 2009년내 매듭"

ASEM 외무 합의

유럽과 아시아의 외무장관들이 29일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2009년 시한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 8차 아시아-유럽(ASEM) 외무장관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일단 새 기후협약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같은 시한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외교관들은 교토 기후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2012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오는 2009년 시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목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재츠 중국 외교부장은 EU는 중국 또는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부국들과 똑같은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나눌 것으로 기대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브뤼셀=연합뉴스

"골든로즈호·진성호 모두 안갯속 부주의 운항"

중간조사 결과 발표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와 우리 화물선 골든로즈호 모두 안갯속 항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성호 선장은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입장이 잡혔다.

지난 22부터 25일까지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한 중국 현지 조사를 벌인 해양수산부 조사단장인 중앙해

양안전심판원 김중의 심판관은 30일 해양수산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심판관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집한 사고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0~40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 파악을 소홀히 했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지 않은 채 항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두 선박의 항적을 기록한 자동확인시스템(AIS) 자료를 보면 골든로즈호와 진성호 모두 안갯속인데도 속력을 거의 줄이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한 속력을 유지한 것으로 바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했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히말라야 비아그라 때문에..."

약용 식물 채취 나선 네팔 주민 16명 사망 수백명 실종

히말라야 산맥에서 약용 식물 채취에 나선 네팔 주민들이 폭설을 만나, 이 가운데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실종됐다고 IANS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네팔 내무부는 북부 툴라지구에서 걸어서 나들이 걸리는 카히가 온 마을에서 히말라야의 비아그라

지 경향이 현지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야르샤구마는 네팔 북부 오지의 해발 4천m 이상 고지에서 나뭇잎 유충 등에 기생하는 균류로 '박쥐나방 동충하초'로도 불리는데 발기 부전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야르샤구마 생산량의 50%를 공급하는 툴라 지구는 고대 인도와 티베트간 교역로로 활용됐지만, 현재는 도로가 없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지다. /연합뉴스

관리는 전했다.

질릭 전 부장관은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역임했으며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뒤 작년 6월 행정부를 떠나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에서 일해왔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질릭 전 부장관의 세계은행 총재 지명에 대해 표할 예정이며 세계은행 집행이사회는 이를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세계은행 새 총재에 로버트 질릭

부시 지명... 국무부 부장관 등 역임



관리는 전했다.

질릭 전 부장관은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역임했으며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뒤 작년 6월 행정부를 떠나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에서 일해왔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질릭 전 부장관의 세계은행 총재 지명에 대해 표할 예정이며 세계은행 집행이사회는 이를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日 아기울음소리 6년만에 늘었다

일본의 출생률이 6년만에 상승하며 1.3대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출생률이 지난 2005년에는 1.26으로 떨어졌으나 2006년에는 0.6포인트가 상승한 1.3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1.3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은 다음달 초순이 같은 출생률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연합뉴스

영어 자동기억시스템!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기억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기억시켜주는 기적의 영어학습방법 AMS로 단축된 영어의 세계를 만나자!

학원이나 학습지보다 10배 이상 빠른 획기적인방법

특목고 조기 준비생, 각종 영어경시대회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의 최적코스

[성공사례 | 퍼펙트 AMS]

◆은상수상장 학생 조소현 (13세, 00초등학교 6학년 인턴)

"AMS! 나의 목적 달성 도우미"

안녕하세요? 저는 조소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6학년이 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기계겠지"라는 생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건성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 보는 학원(영어) Quiz 시험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학원을 중지하고, AMS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학교제엔 영어뿐만 아니라, 일석 삼~사조의 기능이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각종 영어 능력시험 등은 속원말로 거제막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공인 말하기 능력시험인 ESPT에서 47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은상수상장 학생 신지영 (16세, 00중학교 3학년 경기도)

"영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크나큰 행운 AMS"

AMS는 짧은 시간에 비해 그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제가 배운 AMS 과정은 지금도 다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으며, AMS를 배우기 전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영어문장을 읽으며 친구들이 저보고 영어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잘 알고 이해한다고 부러워 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부모님들 또한 좋아 할 수 있는 말씀까지 들어있어 저희 부녀는 매일 말씀을 틀어 놓으며 영어공부를 합니다. AMS를 열심히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친구들이 AMS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이 학교제인 만큼 빠르게 홍보는 되었지만... 좋은 영어 공부법은 서로 공유해야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우연히 AMS를 발견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AMS의 활용분야

각 기종, 모든 학생 필수 -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직장인, 주부, 일반등 전과제 단계별·수준별·영역별 8000개의 콘텐츠로 완벽구성

AMS (주)AMS교육

대표 전화 1600-0596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① 호점 :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②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④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광주 최후 일본 구제 멀티샵

●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 기성품은 변화 개성연출

● Nippon Style

● 허상의 품격

● 부담없는 가격

● 편안한 쇼핑

● 리틀도쿄 이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용 등 다량구비)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스파이더맨 파워레인저 유캔도 프린세스 슈가문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